

판권료 48억·25억뷰·OST 앨범 6만장 판매 돌파

# 한류 드라마 새역사 '태양의 후예'

## 술한 화제 남기고 종영

영리하고 유머러스하며 미스터리한 군인 '빅보스'는 여심을 정확하게 저격했고, 예쁘고 발랄하고 실력있는 외과의 '이쁜이'는 또다시 저력을 과시하며 새로운 한류를 탄생시켰다. 지난 두달 술한 화제를 만들어내며 한국과 중국에서 대대적인 사랑을 받은 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가 14일 16부 여정을 모두 마쳤다. 무려 5년의 시간이 투입됐고, 제작비 130억 원을 모으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낸 '태양의 후예'가 남긴 것들을 살펴본다.

◇ 사전제작·한중 동시방송 첫 성공...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김원석 작가의 '국경없는 의사회'가 원작인 '태양의 후예'는 애초 본편과 재난 지역에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발휘하는 의사들의 이야기였다. 원작은 2014년 스타 작가 김은숙이 가세하면서 전면적인

각색과 이미지 변신에 들어간다. 의사였던 유시진이 특전사 대위로 바뀌었고, 재난 휴먼 드라마에 김작가 특유의 달달한 로맨스가 가미되면서 원안과는 상당히 색깔이 달라졌다.

'상속자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끈 것을 지켜보던 중국 동영상업체 아이치이는 김은숙 작가의 차기작이 정해졌다는 소식에 캐스팅도 안된 '태양의 후예'의 판권을 구매하겠다고 나섰다. 아이치이가 회당 25만 달러, 16부 전체 48억 원 가량을 판권료로 지불하면서 '태양의 후예'는 한중 동시방송을 위해 사전제작을 해야하는 드라마가 됐다.

사전제작 드라마가 성공하지 못했던 국내 드라마 업계에서는 '태양의 후예'의 성공을 확인할 수 없었다. KBS가 나서고, 한류스타 송혜교에 이어 떠오르는 송중기가 캐스팅됐음에도 전망은 불투명했다. 제작일정도 계속 늘어났고, 편성도 두세 차례 밀렸다. KBS는 2015년 내에 꼭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드라마는 2016년 2월24일야야 세상에 나왔다. 마침내 시청자를 만난 '태양의 후예'는 첫방송부터 바로 '대박'을 터뜨렸고, '해를 품은 달' 이후 4년 만에 시청률 30%를 넘어선 미니시리즈 드라마가 됐다.

◇ '별그대' 뛰어넘는 인기...중국 대륙을 뒤흔들다 = 드라마는 공짜로 소비한다는 인식이 강한 중국에서 '태양의 후예'는 돈을 내고서라도 실시간 시청을 하겠다는 팬들이 몰리면서 아이치이는 투자한 판권료 48억 원을 단숨에 뛰어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현재 아이치이에서 '태양의 후예' 누적 뷰는 25억7000뷰를 기록 중이다.

◇ 'PPL의 후예' 비난...빈약한 서사에 뒷심 빠지기도 = 중국을 비롯한 해외 32개국 수출, KBS 방영권, 간접광고(PPL) 등으로 '태양의 후예'는 방송과 동시에 제작비 130억원을 회수했고, 계속해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엄청난 제작비에 대한 압박 탓인지 'PPL의 후예'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노골적인 갖가지 상품광고가 몰입을 방해하고 실소를 자아내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여기에 애초 내세웠던 '휴먼 재난 드라마'라는 설명은 유시진과 강모연의 달콤한 멜로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머물고 말았음을 노출해 실망감을 안겨줬다.

◇ OST 판매량 6만장... '음팔' 뛰어넘는 초대박 터뜨려 = 시청률 40%에 육박하며 종영한 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가 한국과 중국에서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로도 대박을 터뜨렸다.

15일 OST 유통사 뮤직앤유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태양의 후예 OST 볼륨.1'은 3만장이 판매됐으며, 다음 주 발매될 볼륨.2도 사전 예약 판매로만 3만장이 팔려 총 6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음반 업계에선 드라마 OST의 경우 판매량 2만장을 '대박'으로 꼽는다는 점에서 '초대박' 수준이다. 이날 가운데집계에서 따르면 올해 초까지 신드롬을 일으킨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가 발매된 석 장의 앨범을 모두 합해 4만장이 판매됐다. 앞서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앨범은 2만8000여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뮤직앤유는 지난 14일 드라마가 종영했지만 3회에 걸친 스페셜 방송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에 공개된 김준수의 OST 곡이 인기여서 당분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 '아가씨' 박찬욱 감독 칸 진출

### 한국 4년만에 경쟁 부문 진출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아가씨'가 다음달 열리는 제69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칸영화제 조직·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비공식 부문 초청작을 발표했다.

칸영화제에 한국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4년 만이다. 한국 영화는 2012년 홍상수 감독의 '다른 나라에서'와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을 마지막으로 3년 연속 공식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다.

박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2009년 제62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쥐'에 이어 세 번째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올해 칸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는 박 감독 외에도 자비에 들란, 짐 자무시, 켄 로치, 다르덴 형제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등 세계 각국의 이름 난 거장들이 대거 초청돼 황금종려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나홍진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신작 '극성'은 공식 비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나 감독의 데뷔작 '추격자'(2008)는 칸영화제 미드나잇 프로젝트에 초청됐고, 그의 전작 '황해'(2010) 역시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바 있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도 상업성 있는 영화들이 상영되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받았다. 베를린·베니스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1~22일 열린다.

/연합뉴스



## 배우 윤시윤

### '1박 2일' 새 식구 되다

배우 윤시윤(30·사진)이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에 새 고정 멤버로 합류했다고 KBS가 15일 밝혔다.

KBS는 이날 그의 합류소식을 알리며 "윤시윤이 현재 촬영 중"이라고 전했다. 김준호, 차태연, 데프콘, 김중민, 정준영

이 출연하는 '1박2일'은 지난해 12월 배우 김주혁이 하차한 뒤 새로운 멤버를 모색해왔다.

윤시윤은 지난 2009년 MBC TV '지붕고 하이킥'으로 데뷔했으며 해병대로 복무하고 지난 1월 전역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쾌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인당 우리말(재)	00 공사창립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2016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방송의 신 선형 1부)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 (총선결과와 정국전망)
1 뉴스특급	00 네트워크 특선 (탐사의 진실)(재) 55 우리 사는 세상(재)	00 장애인들의 날 특집 드라마 퍼펙트 센스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직인직설	00 명인 50 콘서트 필	20 특집다큐 新 관광전쟁 (13억의 마음을 잡아라)	00 키즈 사이언스 5	00 2016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강의계 360년 우정)
3	40 이국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인당 우리말 55 튜닝생활제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토크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한국의 야생 20 TV책	00 TV유치원 30 이국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안방 저우야
5 4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출발드림팀 2(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토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지역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내려와 성)
8 20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버스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화 조율호)	00 월화 특별기획 (문스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관찰이 관찰아
12 40 개밥주는 남자(재)	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기능 한국인 (테이프의 무한변신 점착테이프 제조 박광민) 06:10 EBS 인문학 특강 (내 사위의 여자)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츠	09:40 라이보 토크 부모 (엄마 피 말리는 우리 집 상선)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영양 칼럼과 취나물 김치)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 (바람불어 좋은 날 가파도)(재) 12:00 EBS 뉴스 12:10 시대공간 (우리) 12: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2: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뽀롱뽀롱 뽀로로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꼬마기사 마이크 15:4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선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고신지대의 슈바이처 펠사온) 20:50 세계테마기행 (세익스피어 문화기행) 21:30 한국기행 (세상의 끝 고원을 가다) 21:50 EBS 다큐 프리리 (피미르와 히말라야)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간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특별기획 통찰 (인류 이야기의 시작, 길가메시 서사시)
<p>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8일(음 3월 12일 庚午)</p>	
<p>子 48년생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라. 60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72년생 바람직한 병행인지 진로를 확인해 보자. 84년생 분수에 맞지 않는다 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셔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1,50</p>	<p>午 42년생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루어라. 54년생 파격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66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78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살맛나겠다. 행운의 숫자 : 57,85</p>
<p>丑 49년생 대연의 모색이 절실할 필요로 국제에 놓여 있다. 61년생 기쁨이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가 처리되는 형국이다. 73년생 노력 무지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르겠다. 85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51,01</p>	<p>未 43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55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67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여겨도 된다. 79년생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아무런 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9,81</p>
<p>寅 50년생 서두름수록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62년생 쌓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74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86년생 면밀한 조치가 취약점을 통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2,65</p>	<p>申 44년생 대어는 다 놓치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56년생 완전 개신하지 않으면 해롭다. 68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보인다. 80년대 행태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8,40</p>
<p>卯 51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3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5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87년생 일상에 충실하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68</p>	<p>酉 45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57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된다. 69년생 성부의 행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라. 81년생 심혈을 기울일수록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74</p>
<p>辰 40년생 파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썩뜨리라. 52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64년생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76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88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마라. 행운의 숫자 : 61,27</p>	<p>戌 46년생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58년생 송두리째 버리느냐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가느냐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70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82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81</p>
<p>巳 41년생 실속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53년생 요인을 해소하자. 65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77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89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80</p>	<p>亥 47년생 애초의 상황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59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71년생 사소한 집착이 대국을 망칠 수도 있다. 83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5,49</p>
<p>"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p>	